

# 통합형 지방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Establishing the Educational Archives through Integrating Museum, Archives and Library Functions in Gyeongsangnam-do

우 지원(Jee-Won Woo)\*\*

설 문 원(Moon-Won Seol)\*\*\*

### <목 차>

I. 서론	아카이브
1. 연구목적	2. 국내 교육박물관 현황
2. 선행연구	IV. 경상남도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방안
II. 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필요성	1. 역할과 환경 요건
1. 교육자치와 기록물관리의 독립성	2. 경남 교육청 현황 분석
2. 관리대상 기록물의 특수성	3. 박연묵 교육박물관 현황 분석
III.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사례와 국내현황	4. 설립 방안
1. 해외 사례: 토론토 교육청 박물관 /	V. 맺음말

### 초 록

교육기록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창이며, 따라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의 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 연구는 경상남도를 사례로 교육청 단위의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의 기능이 통합된 '교육 라키비움'을 의미한다. 먼저 지방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로 토론토 교육청 박물관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 라키비움' 모델을 도출하고,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에서의 설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기록물 및 부지 기부 의사를 밝힌 박연묵교육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박연묵교육박물관 기록물 현황 및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록물관리기관의 비전과 역할, 조직과 인력구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지방교육 기록화, 교육기록물관리기관, 교육 라키비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교육청, 교육박물관, 경상남도

###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Larchiveum' especially for the Kyeongsangnam-do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ducational Larchiveum' means Educational Archives including some museum and library functions. This study begins with articulating that why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hould establish their own archives despite of legal obligation. It draws the roles of 'Educational Larchiveum' and its environmental requirements, based on analysing the Archives/Museum case of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Education. Finally it suggests that how Gyeongsnam-do Offie of Education can establish the 'Educational Larchiveum' in condition of integration of the Gyeongsnam-do Educational Museum and the private educational museum(Park Yeon-mook Educationl Museum).

Keywords: Documenting local education, Educational archives, Educational larchiveum, Provincial archives, Office of education, Educational museum, Gyeongsangnam-do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4223).

\*\*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박사과정,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woo1980800@korea.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5월 23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153-180, 2015. [http://dx.doi.org/10.16981/kliiss.46.201506.153]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방법

지방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은 지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각 지방의 교육기록에는 교육행정은 물론 지방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으며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지방의 공공기록이 중앙과 다른 체계에서 운용되듯이 지방교육기록 역시 각 지방교육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행정은 지방교육자치제를 근간으로 하며, 교육청은 중앙의 교육행정은 물론 지방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권화된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자치의 이념과 생산관리하는 기록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청은 독립적인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경우 동법 제11조 제2항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설립의 강제성이 없다. 이러한 임의 조항으로는 교육청이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설득하거나 주장하기 어렵다. 예산지원기관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은 굳이 따로 설립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해당 광역사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교육청 기록물을 이관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설립된다 해도 광역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교육청 기록물을 이관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교육행정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교육행정, 학교 및 교육사와 관련된 기록은 일반적인 지방행정기록물과 다른 관점에서 관리하고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당위성에 근거한 주장만으로는 설립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렵다. 재정적 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독의 시설 건립에 앞서 기존의 시설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경우 사천에 위치한 박연목교육박물관에서 8,600여 점의 기록물과 가능하다면 부지도 기증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경남교육청과 박연목교육박물관이 경남교육역사기록물 관리 협약을 맺는 등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경남신문, 2014.11.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통합형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하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박연목교

육박물관의 기증을 고려하여, 박물관, 기록물관리기관, 도서관 기능이 결합된 ‘교육 라키비움’을 설립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라키비움 형식의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경상남도 교육청, 공공 및 민간 교육박물관의 기록 실태는 내부 문서 및 방문을 통한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연구 및 국내 현황 조사를 토대로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환경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에 교육청 소속 교육박물관, 민간 교육박물관을 수용한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선행연구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청의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 라키비움 방식의 설립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청 및 학교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학위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경남의 지방교육행정기록물 관리체계를 연구한 정국환(2004)은 전문적 기록관리를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기록관 설치 확대,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보 및 담당자들의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임희연(2004), 안미리(2009)는 단위 학교의 기록물관리 방안, 최규명(2007), 강지연(2012), 이상희(2014)는 교육청 기록물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에, 이성희(2009)는 교육청 기록물의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고, 박현정(2009)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기록물 관리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기록물관리에 대한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한 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없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수걸(2009)은 2006년 기록물관리법 전면개정 이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 된 상황에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권범식(2009), 서한글(2012), 이재환(2011)은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각 지자체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진한(2014)은 서울시 기록물관리기관(이하 서울기록원) 설립이 결정된 시점에서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설립되지 못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서울기록원의 도입배경, 서울기록원 설립 배경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할 때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라키비움 방식의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로 최영실, 이해영(2012)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의 기능적 특성과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키비움의 기능 요건을 설정하여 공간 기획을 위한 기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영실(2013)은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간기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유승(2012)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국회 라키비움을 제안하였다. 김민경, 이성신(2014)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정훈, 이웅봉(2014)은 실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라키비움 구축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청 기록관리 연구를 통해서도 교육청 기록물의 특징 및 서비스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는 어려웠으나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특징에 따라 설립 전략과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라키비움 관련 연구에서는 라키비움이라는 복합적 서비스 공간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으나 ‘교육 라키비움’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기록물과 박물관 등의 특징에 기반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 Ⅱ.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필요성

교육청은 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교육청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기록물관리관 설립의 필요성을 교육자치와 소관 기록물의 특성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다.

### 1. 교육자치와 기록관리의 독립성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1991년 도입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는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신현석, 안선희 외 공저 2011, 280).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독립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한다(앞의 책, 280). 지방교육행정체제는 광역 수준의 시·도 교육청과 기초 수준의 시·군·구 교육지원청으로 구분되고(양승실 2010, 105)<sup>1)</sup> 본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로 사무가 전

달되는 계층적인 구조로 이루고 있다(오세희 2013, 68).

현재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지 않으면, 30년 이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광역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교육청 기록물을 이관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기록관리에 대한 자율성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가령,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남겨야 할 기록을 선별하는 최종 평가를 광역지자체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교육행정 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물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행정기록물은 교육청 단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막연하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행정 관료와 지방의원들은 기초 지자체의 기록물 이관조차도 비판적이다. 광역과 기초는 상하 위계가 아니라 독립적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영구보존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부담이 명백한 업무인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기록을 이관 받을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서울기록원 설립 자문회의 자료 2014. 12. 1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업무가 지방 사무가 아니라 명백히 국가 사무라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이관이 가능하지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예산 요청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정 관련 부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지방사무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한다면 교육청 기록물의 이관은 더욱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지방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자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자치체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행정이 이뤄지는 지방행정기관과 달리 광역 단위로 교육 자치가 실시되는 교육청의 경우, 광역 단위의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2. 관리대상 기록물의 특수성

지방교육기록물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 교육청·시·군 교육지원청·소속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과 학교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나눌 수 있다(정국환 2004, 11). 기록물의 형태는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문서·행정박물 등을 모두 포괄한다.

1) 광역 수준의 지방교육행정의 단위는 행정구역인 시·도와 일치하고, 기초 수준은 시·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2호)

우선 지방교육기록물의 특징을 기능분류체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정책영역은 교육일반,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으로 나뉘는데, 이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4개의 대기능(교육과정계획 및 개선, 학교교육운영, 교육활동지원, 컨설팅 및 평가)으로 나뉜다. <표 1>은 이중 지방교육기록물의 특징을 보이는 정책영역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일부 소기능과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를 열거한 것이다. (학교)라고 표시된 것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단위과제들이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생산되는 많은 기록들이 편철되며, 학생의 활동 기록과 같이 일반 행정 기록물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기록들이 많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분류체계에도 드러나듯이 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과 학교 기록물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 교육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과 학교 기록물을 모두 관리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1> 기능별과제카드목록(경남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기능분류체계 일부 발췌)

소기능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
교육과정계획	교육과정운영기본계획수립지원	유치원장학, 초중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원	50대 교육과정, 교육기부, 행복학교 등
	교육과정평가및질관리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수준별교육과정 등
	장학자료개발및보급	장학자료개발및보급, 컨설팅장학 등
	자율학교지정및운영지원	자율학교지정및운영지원, 학교특성화교육 등
	소규모학교협동체제운영	농산어촌순회교사, 소규모협동학교운영 등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수립및운영(학교)	자유학기제, 거점유치원, 사교육경감 등
	협동교육과정운영(학교)	융합교육, 교육기부, 돌봄교실운영일지 등
교원전문성 신장	연구대회운영	경남교육자료개발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등
	교과교육연구회운영	교육박람회, 월드비전, 전문교과연구회지원 등
	교원연구동아리지원	수업연구교사발표대회 등
	우수교사인증제	문화예술분야명인제, 으뜸교사인증제 등
맞춤형수업 운영	맞춤형수업운영일반	고교교육력제고, 수준별이동수업 등
	기초및심화과정운영지원	우수학생심화과학반 등
	수준별수업운영(학교)	수업공개, 부진아지도, 심화반 등
	교과교실제운영(학교)	수학업무, 음악교과활동, 수준별수업 등
	대학과목선 이수제운영(학교)	대학연계프로그램, 논술지도, 진학, 진로관련 등
	기초및심화과정운영(학교)	방과후야간수업희망조사, 기초미달학생교육 등
교수학습 자료관리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	체험수학프로그램개발, 문헌정보실 등
	인정도서개발 및 보급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수급 등
연구 및 중점 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S/W교육연구학교운영, 행복학교운영 등
	중점및선도학교운영	영어선도학교운영, 진로교육 등
	혁신학교운영	혁신학교수업연구회, 혁신학교추진단운영일반 등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학교)	행복맞이학교운영, 토박이말교육, 교육기부 등

철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과제카드를 보면 일반 행정기록물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각종 장학업무, 교육역량교육관련 업무, 대학연계프로그램 관련 기록물 등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기능분류체계에 드러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생산되는 많은 유형의 독특한 기록물이 포함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보건일지, 학생수상 대장 등 학생 개개인의 권리증명 등 개인정보 관련 기록물부터 학교재산대장, 연혁지, 교무일지 등 학교 수업 상황 및 학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물도 생산되고 있다.

특히 전통과 유서가 깊은 학교에는 다양한 기록물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기록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기록물은 그 규모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과 학교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학생 개개인의 인적 기록물들은 독립적인 교육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은 교육 정보 자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간행물은 교육연구 및 교육과정의 결과물이며 국가의 예산으로 발행되어 각종 교육통계·조사·연구의 기초 자료와 교육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역사적, 행정적 가치뿐 아니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지방교육기록물에는 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학교행정 및 교사와 학생 기록물, 다양한 교육 간행물이 포함되며, 이들 기록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생산 맥락과 함께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청 단위의 독립적인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교육기록물을 수집하고, 지방교육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교육과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의 관리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교육청 기록의 다양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정보요구가 강해질수록 이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Ⅲ.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사례와 국내 현황

#### 1. 해외 사례 : 토론토 교육청의 박물관·아카이브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Toronto Board of Education)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육청으로서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sup>2)</sup> 그 설립과 발전과정, 주요 소장기록물, 역할과 서비스를

2) 이 사례 분석은 2012년 발표된 논문(Garnet 2012)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대부분 별도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외에 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가. 설립과 발전과정

토론토 교육청(Toronto Board of Education)이 공식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1월 1일부터이다. 이때 문서, 자료, 역사적 성격을 가진 문서, 가구를 보존전시하는 박물관 및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직원을 임명하고, 역사적 문서와 관련 자료의 구입과 이용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교육센터 참고도서관(Education Centre Reference Library) 소속인 기록센터(Records and Archives Centre)가 기록의 이관, 기증, 구매 등을 통해 역사 컬렉션을 수집하였다. 1984년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록센터는 참고도서관에서 행정서비스부로 이관되고, Museum,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MARM)라 불리는 부서로 재조직되었다. 아카이브와 박물관이 통합된 조직으로 재편되고 업무가 확장된 것이다.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가속화된 대규모 이민으로 토론토 시는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토론토교육청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문화적으로 동화, 흡수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유산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교육청은 박물관 컬렉션에 학생들의 미술컬렉션을 적극 포함함으로써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육청 시각예술부서에서 다문화 '유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1981년부터 매년 교육청 사무실 전시용으로 학생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었다. 시각예술 코디네이터가 전통문화와 신문화 간의 접합을 보여주는 인쇄물, 회화, 조각 컬렉션 수집을 감독하였다.

1984년 교육청은 토론토 시 150주년 행사 준비에 적극 참여하였고, 예술과 박물관을 위한 항구적인 전시 공간으로서 150주년 기념박물관 설립을 결정하고 상근직 큐레이터를 임명하였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미술 컬렉션 수집에 재정지원을 계속하였고, 기념물과 벽화 복원 지원, 다문화 유산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각 학교가 소장한 기록과 문화유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교 기록관리를 장려하였다.

1980년대에는 예술교육 장려 파트너인 Learnxs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박물관과 미술품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 재단은 6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설계하였고 토론토 교육청이 이를 추진하거나 지원하였다. 1976년에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대형출판사가 맡아주지 않는 교육 자료를 출판함으로써 지역과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1988년 초, 재단은 토론토 교육청의 중견 관리자, 박물관/아카이브 직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예술 및 박물관컬렉션의 기록화를 위한 Art Book Committee를 구성하고 박물관/아카이브의 역사를 편찬하는 방대한 작업을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토론토 교육청이 소장한 박물관 아카이브 컬렉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러한 자원을 학교 수업에서는 물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컬렉션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유산의 격차와 컬렉션의 불균형을 확인하였으며, 교육청의 초창기 유산 프로그램이 70년대 이후 토론토 지역에서 일어난 엄청난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서구권 배경을 가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단의 주선으로 교육청은 토론토 시의 다문화 집단과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중국, 일본, 세르비아, 캐리비아 등지의 다양한 예술가 작품을 수집하고 기증받게 되었다. 1993년에 발간된 단행본 『토론토 학교 미술의 역사(A History of Art in Toronto Schools)』에는 토론토 교육청의 역사기록과 미술컬렉션의 역사가 담겨있다.

1990년대 말 토론토 교육청의 박물관·아카이브에 큰 변화가 닥쳐온다. 1997년 보수당의 온타리오정부 하에서 Fewer School Boards Act (Bill 104)가 통과되고 1998년 1월 1일 6개의 공립교육청(East York, Etobicoke, North York, Metro Toronto, Scarborough, and York)이 합쳐져 토론토 광역 교육청(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TDSB)으로 재탄생하였다. TDSB에는 30만 명 이상의 학생과 2만1,000명의 직원, 600개 학교에 책임을 지는 22명의 교육위원들이 있다. 이로써 TDSB는 캐나다에서 제일 크고 북미지역에서 4번째로 큰 교육청이 되었으나 박물관·아카이브는 위기를 맞게 된다.

합병 이후 10년간 교육청 아카이브는 교육청으로부터 이관된 미술컬렉션과 기록컬렉션으로 넘쳐났다. 이후 2009년에 이르기까지 아카이브 행정은 방향을 잃었고, 이용자도 거의 없었다. Learnxs 재단의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도 거의 사라졌다. 고위 관리직들은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거의 없었고, 2005년 즈음 아카이브는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TDSB 아카이브 직원들은 1998년부터 각 교육청의 컬렉션을 이관 받는 절차를 수행했지만 기록조사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다. 2003년 미술가이자 TDSB 교육위원인 Gary Crawford의 지원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교육계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가치평가와 소장 기록 조사”를 위한 미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활동하였다. 교육청 내부에는 소장물을 평가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외부의 문화 자산 관리와 큐레이션 전문가들을 고용하였다.

교육청의 박물관·아카이브에서는 모든 직원, 교육청, 정부와 공동체가 기록 및 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사물(objects)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을 하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범주의 TDSB 컬렉션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고, 컬렉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물을 이용한 의미 있는 학습’은 TDSB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기록서비스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토론토 교육청이 ‘교육제공자일 뿐 아니라 문화보존소’라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 나. 소장자료

1980년대와 90년대 컬렉션은 기록컬렉션(Manuscript and Historical Collection), 사진 컬렉션(Historical Picture Collection), 박물관 컬렉션(Artifact Collection)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록컬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 2,500권에 달하는 교육청 출판물인데 여기에는 교육청의 가장 오래된 공문서인 1847년 인쇄된 필사 회의록이 포함된다. 1859년 보고서에는 1859년도 시의 공립학교 통계뿐 아니라 시립 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관한 간략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컬렉션에는 온타리오 교육사 연구에 필요한 교육청 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각 학교별, 교육청 부서별, 행사별, 교육과정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파일을 구성하였고, 광범위한 인명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1877년부터 시작한 언론 클리핑 파일에는 토론토의 신문에 나타난 교육청의 역사를 볼 수 있다. 60권이 넘는 이 파일들은 연대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기록컬렉션에는 1846년부터 현재까지 온타리오에서 사용된 2천권 이상의 교과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약 4천 건의 역사 사진 컬렉션에는 학교 건물, 스포츠 팀, 교육청 활동, 콘서트, 교실 학습 활동, 교육청 관련 개인, 수업 사진 등이 있다. 교육청의 건축물 도면, 청사진 등도 이 컬렉션에 포함된다. 모든 사진의 복사본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원본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컬렉션은 약 1,800점의 가구, 회화, 초상화, 조각, 액자 그림, 인쇄물, 트로피, 메달, 학교 및 사무실 비품 등으로 예술적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것들이다. 이 작품들은 캐나다 예술가의 작품 중 토론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컬렉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에 박물관 컬렉션은 기록센터, 토론토 교육센터의 사무실이나 전시 공간 등 여러 교육 시설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토론토 지역의 각 학교에 소장되어 있었다.

교육청 합병 이후 TDSB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육 아카이브 및 박물관 컬렉션을 갖게 되었으며, 이들 컬렉션은 특히 미술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DSB 컬렉션은 현재 미술 컬렉션, 박물관 컬렉션, 기록컬렉션(archival collection)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백만 건 이상의 소장물이 150주년 기념 박물관·아카이브(Sesquicentennial Museum & Archives), 보관소, TDSB의 각 학교, 토론토 시의 여러 사무실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TDSB의 컬렉션은 캐나다 교육계, 특히 미술교육계에 풍부한 일차 역사정보원을 제공한다. 아직 연구되지 않은 가치 있는 기록물이 상당히 많이 소장되어 있다. 미술 및 미술 관련 이미지와 박물관(미술, 인쇄 컬렉션, 학생 미술, 기념 초상화, 반신 조각상, 건축도면, 벽화, 전쟁 기념물, 공공 조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자료(교과서, 교육청 문서, 전문적인 개발 자료), 사무실 집기(책상, 타이프라이터, 가구), 교실 비품(미술 도구, 트로피, 장식판) 등 매우 포괄적이다.

이러한 소장 자료는 질적·양적으로 독보적이며, 교육학자들이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 자료라고 평가받고 있다(Cunningham 2004). 특히 미술가이자 교사의 일대기, 미술 교육과정 연구, 기관의 역사와 같은 미술교육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미술, 벽화, 공동체 아트 프로젝트, 사진, 학생 기록, 업무 일지, 내외의 공공 문서, 토론토 학생들의 미술 분야 성과를 조명한 신문기사 클리핑 자료집 등에 담긴 구체적인 정보는 사회·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 다. 주요 서비스

토론토 교육청의 박물관아카이브는 토론토 시 공공교육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제공한다. 또한 소속 학교들의 교과과정을 토대로 학생 프로그램은 물론 공개 수업이나 강의도 지원한다. 단체 견학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을 하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와 토론토 시의 아카이브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미술컬렉션 전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아카이브는 이밖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984년 가을부터 ‘일상의 추적: 옛 토론토의 생활(Daily Pursuits: Life in Early Toronto)’이라는 이름으로 7학년과 8학년 학생들을 위한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MARM이 주관하였으며 오전에는 150주년 기념박물관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박물관과 역사문서를 실제 보면서 19세기 토론토의 사회사를 배운다. 오후에는 1948년 복원된 오래된 교사 Enoch Turner 교사(Schoolhouse)와 주변 지역을 답사한다. 이곳은 19세기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생활상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2011년에는 다양한 실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첫째, TDSB 자료 문화 아카이브를 실험적인 학습과 연계하기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이다. 토론토 대학의 정보학 교수들과 협력하여 TDSB 학생들이 컬렉션을 직접 활용하는 수업을 박물관학 대학원생들이 지원하도록 하는 흥미로운 학습방식을 개발하였다. 토론토 대학은 컬렉션의 지속적인 보호와 활용에도 TDSB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교육사 연구 프로젝트이다. TDSB의 기록과 박물관컬렉션, 미술품을 이용하여 Egerton Ryerson(1803-1882)이 토론토 공교육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온라인 프로젝트이다. 교육자이자 정치가였던 Ryerson은 온타리오 주 공립교육제도를 확립한 인물이다. 이밖에 TDSB는 캐나다 유산협회, 도시 기반의 사업단, 공동체 아트 페스티벌 등의 비영리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라. 시사점

토론토 교육청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부터 박물관 기록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수집 관리되었다. 교육박물관과 교육기록, 그리고 교재와 같은 교육출판물은 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기록'(행위의 결과물이자 반영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법은 교육기록관리에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행정기록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자료, 학생들의 활동자료와 미술작품, 교재 등 출판물, 교육에 사용된 박물관 등 학교 일선에서 생산된 기록과 정보, 박물관 적극 수집함으로써 토론토 시 교육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다양한 시각 자료의 수집에 성공함으로써 기록 학습과 전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셋째, 토론토 교육청의 다문화주의를 적극 반영한 수집정책을 시행하였다. 토론토 이민자들의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교육정책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구입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가진 미술품을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이민자 학생들과 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으며, 박물관아카이브를 통해 토론토 교육청은 스스로 '교육행정기관'뿐 아니라 '교육문화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기록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자체적인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 학생 작품 및 각종 소장물 전시, 교육청 소장 기록을 이용한 수업의 지원 등의 서비스 외에도 외부 비영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실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토론토 교육청의 한계는 모든 아카이브와 박물관 컬렉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150주년 기념 박물관아카이브가 있으나 많은 기록과 박물관이 분산 소장되어 있다. 모든 학년의 학교 수업과 교과과정을 유지하고, 자료 문화 연구와 같은 교육이론과 결합된 진보적 교육과정이 미술, 인문학, 사회과학을 넘나들며 시행될 수 있는 전용 건물의 건립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Dustin Garnet, 앞의 글, 60).

## 2. 국내 교육박물관 현황

박물관과 아카이브 통합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교육 관련 박물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교육청 뿐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에는 기록관만 존재할 뿐 아직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사례가 없으므로 교육박물관 현황만을 조사하였다. <표 2>는 전국의 교육박물관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표 2〉 교육박물관 설립현황(경남교육청 기록관보유자료 2014. 9.)

구분	소속(운영자)	박물관명	개관 연도	위치	시설현황 (㎡)	소장유물 (점)	비고
사도 교육청	서울 정독도서관	서울교육박물관	1995	종로구	1,927	13,030	정독 도서관내
	대전	한밭교육박물관	1992	삼성동	2,120	30,000	
	충북	충북교육박물관	2006	청주	1,457	7,176	
	경남	경남교육역사기록관	2011	창원	386	5,177	
	제주	제주교육박물관	1995	제주	5,373	18,693	
지방자치 단체	울산광역시	추여의학교	2010	당사동	2,286	160	
	부천시	부천교육박물관	2003	원미구		4,700	부천시 박물관내
대학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1986	북구	1,455	7,803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1975	남구		6,416	
	서원대학교	한국교육자료박물관	1994	청주	7,500	53,800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1987	청주	1,323	33,262	
개인	김동선	덕포진교육박물관	1996	김포	1,246		
	손 혁	록봉민속교육박물관	2011	부산	982	2,000	
	박연묵	박연묵교육박물관	2006	사천	1,157	8,600	
기업	㈜미래엔	교과서박물관	2003	세종		170,000	

사도교육청의 경우 5곳에서 교육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소장유물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학예연구사를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에는 교육청에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이, 개인박물관으로 박연묵교육박물관이 있다. 교육박물관은 교육기록물관리기관과 그 역할이 상당히 유사하다. 가령 서울교육박물관의 경우 1993년 서울교육사료관으로 출범하였으나 1996년 문화체육부로부터 교육전문박물관 승인을 받았고 2011년 명칭을 서울교육박물관으로 변경하였다.

대부분의 교육박물관에는 지역 교육사 관련 박물관뿐 아니라 많은 문서와 교과서 등의 출판물을 소장하고 있었다. 교육박물관이 소장한 박물관도 대부분은 교육활동과정에서 산출되거나 교육활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박물관과 교육기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박물관과 교육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이러한 박물관들과 협력할 수 있다면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 IV. 경상남도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

### 1. 역할과 환경 요건

통합형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통합하거나 이들 가운데 두 기관을 병합하고 나머지 하나의 기관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기관에 다른 기관의 공간 기능을 덧대어 종전과는 전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등 여러 변수가 있을 것이다.(최영실 2013, 149)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고려할 때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기록관과 박물관을 통합하고,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른바 ‘교육 라키비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역사기록관, 박연묵교육박물관의 기능과 공간을 결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표 3> 참조).

<표 3>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주요 역할	세부 내용
교육사 기록 및 박물관의 체계적 수집관리와 후대전승	· 교육행정 및 학교 기록과 박물관의 체계적 수집과 영구적 보존 · (준)현용 기록관리의 지원
기록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의 지원	· 기록을 활용한 수업 자원(견학, 공개강의, 과제 지원 등) · 교사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교육행정 및 교육사 연구 지원
교육 간행물의 수집과 서비스	·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납본 수집 · 교육정보서비스의 제공
교육정보공개와 알권리 보장	· 대국민 정보공개 · 교직원, 학부모, 졸업생 등을 위한 증빙서비스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확충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박물관 기록 수집 · 전시, 체험활동 등 지역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가. 교육사 기록 및 박물관의 체계적 관리와 후대전승

-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기록물과 행정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기록물과 행정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이관 받음으로써 안전한 보존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일선 기관들의 기록물 및 행정박물관의 관리 부담을 경감시킨다.
- 기록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지원청, 학교를 위한 기록관리 지원서비스와 관리 지침을 제공한다.

#### 나. 기록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의 지원과 촉진

- 지방의 교육기록자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공하고, 견학프로그램, 기록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지역사 학습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교육 간행물의 수집과 서비스**

- 지역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납본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여기에 온라인 간행물도 포함한다.
- 간행물 및 각종 교과서 등 각종 정보자원을 토대로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교육정보공개와 알권리 보장**

- 교사, 학생, 교육공무원 등을 위한 증빙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마.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확충**

- 캐나다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컬렉션 수집전략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확충한다. 한편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본청 직속기관)과 일선 학교의 기록물뿐 아니라 사회 통합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록 컬렉션을 수집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4〉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환경 조건

환경유형	환경조건
관리환경 (수집/보존/연구/경영)	시설유지, 안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 운영의 용이성 확보
	전시물 교체를 고려한 가변적인 전시환경 구축
	소장기록물 및 교육사료 연구를 통한 사료 수집 활동
	추가 자료 수집에 대비한 수장 환경 및 보존 환경 조성
교육/연구환경	기록과 박물관을 활용한 수업 지원
	박물관 교육 등 학생지역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연구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관람환경(전시/체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 구성
	학생 및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 환경 구성
문화환경	다양한 문화시설과 인락한 공간 구성으로 방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주변의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 관광 자원 역할

‘교육 라키비움’의 구축을 통해 교육역사 기록 및 박물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안정적인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박물관과 기록을 이용한 현장 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교사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기록 자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교육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토대로 경남교육청과 박연묵교육박물관의 기본 인프라를 조사하고 통합형 기관의 설립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경남교육청 현황 분석

### 가. 소장 기록 및 박물관

교육청기록물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산하 18개 지역교육청과 각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기록물을 포괄한다. 이외에 앞서 언급한 경남교육역사기록관에서 수집한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있다. 교육청 기록물은 대부분 교육 관련 기록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관별 기록물 보유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기관별 보유기록물 현황(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에서 취합한 각 지역청 자료(2014.1.1.))

연번	기관명	비전자기록물(권)	전자기록물(건)	계
1	경상남도교육청	377,643	9,739,979	10,117,622
2	창원교육지원청	162,049	8,328,215	8,490,264
3	진주교육지원청	22,859	2,863,350	2,886,209
4	통영교육지원청	40,572	1,397,003	1,437,575
5	사천교육지원청	19,550	1,386,853	1,406,403
6	김해교육지원청	141,339	4,135,684	4,277,023
7	밀양교육지원청	32,093	1,552,403	1,584,496
8	거제교육지원청	53,795	2,370,611	2,424,406
9	양산교육지원청	15,521	795,633	811,154
10	의령교육지원청	18,407	1,137,191	1,155,598
11	함안교육지원청	26,232	1,117,473	1,143,705
12	창녕교육지원청	27,639	2,182,660	2,210,299
13	고성교육지원청	41,238	1,145,351	1,186,589
14	남해교육지원청	41,455	996,691	1,038,146
15	하동교육지원청	48,185	1,146,962	1,195,147
16	산청교육지원청	37,042	823,338	860,380
17	함양교육지원청	26,866	832,544	859,410
18	거창교육지원청	6,357	1,147,545	1,153,902
19	합천교육지원청	52,727	1,155,604	1,208,331
	계	1,191,569	44,255,090	45,446,659

비전자 기록물 중 30%정도인 약 36만 권이 30년 이상 기록물이며 교육기록물관리관이 설립되면 이관대상 기록물이 된다. 그리고 전자기록물의 30% 정도인 1300만 건 가량이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이유가 될 수 있다. 36만 권 이상의 기록물이 이관되어 보존될 수 있는 환경과 1300만 건 이상의 전자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의 보유 기록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경상남도역사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2015. 경남교육청 보유목록 대장)

보유량 및 내용구분		보유량	주요내용	총계	
일반 문서류	문서(권)	739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회의록(제1회~248회)	1,476	
	문서(건)	737	선행뺏지수여증(1971) 봉급명세서(1980~90년대) 두미공립초등학교 사령통달(1949) 등		
	소계				
시청각	사진·필름류	사진	1,961	거창지역졸업생사진(1946) 거창공립청년훈련소평중좌사열기념(1943) 등	
		앨범	16	경남교육위원 의정활동 사진 등	
		필름	19	릴 필름(자연과/버섯)	
		시청각필름	403	교육공무원명예퇴임(1983) 소비절약고취옹변대회(1985)	
	녹음·동영상류	시청각 스캔파일	4,237	김혜, 진주, 양산, 밀양, 거제, 함안교육지원청 수집자료	
		소계	LP	8	국민체조(1978), 한국가곡전집(1975) 등
			비디오테이프	86	경남도의회 회의 자료
			카세트테이프	475	제11대경남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소견발표회 녹취자료(1998) 행정사무감사 녹취 등
			CD	17	교실 선진화 교육자료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 등
			DVD	110	각종 회의자료
파일	1	청소년과의 만남 녹취록(2014)			
소계			7,333		
간행물	일반간행물	2,042	고성명사록(1959) 흙내(밀양농잠중학교 교지 1951,1955,1956) 내무아문훈시(1985) 등		
	교과서	925	중등 체육교본(1954), 표준화학 상(1956) 최신해석(1956), 새중학문법(1971) 등		
	소계			2,967	
행정박물	소계		강습증서(1911), 포장(1922) 등	1,001	
총계				12,777	

일반 문서류는 권으로 수집한 문서 739권, 날 건으로 수집한 문서 737건으로 나뉜다. 권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회의록이 대부분이며 날 건으로 수집된 문서는 개인이 기증한 봉

급명세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이 주를 이룬다. 시청각 기록물은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로 나뉘볼 수 있다. 사진·필름류는 사진, 앨범, 필름, 시청각필름, 시청각 스캔 파일로 6,736점이 있다.

시청각 스캔파일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각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수집한 자료를 스캔한 파일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녹음·동영상류는 총 697점이 있다. 간행물은 일반간행물과 교과서로 나뉘 볼 수 있다. 약 2,000여 권의 일반간행물의 경우 교과서가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와 관련된 간행물이다.

이외에 행정박물은 1,000점 정도인데 강습증서, 포장 등 과거자료부터 학교중, 인체해부도 등 학교에서 사용하던 박물들이어서 추억의 학교를 돌아보게 하는 기록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시설 및 관리 현황(2014. 경남교육청 박연묵교육박물관 조사보고서 참고)

교육청 기록관의 경우 별도의 건물이나 서비스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은 기록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2011. 5. 11. 제정]에 따라 2011년 1월 27일 개관했으며 일반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경남역사기록관 일반현황

구분	위치	시설면적	인력현황	전시관 운영	
				관람시간	휴관일
내용	유목초등학교 별관 1층	386㎡	1명 (사무운영 6급, 파견근무)	10:00~17:00 (점심 12:00~13: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2011년 개관하여 교육행정박물을 수집·운영하고 있는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은 초등학교 일부를 개조해 만든 곳이고 전담 인력도 없어 각 지역의 교육행정박물을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결국 대부분의 교육행정박물들은 경남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등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다.

현재의 시설은 경남교육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관이라 하기에는 시설, 인력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4년간의 노력으로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양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경남교육역사기록관 이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홍보 및 서비스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공간도 협소하여 역사기록관 관람이외에 다른 볼거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남교육역사기록관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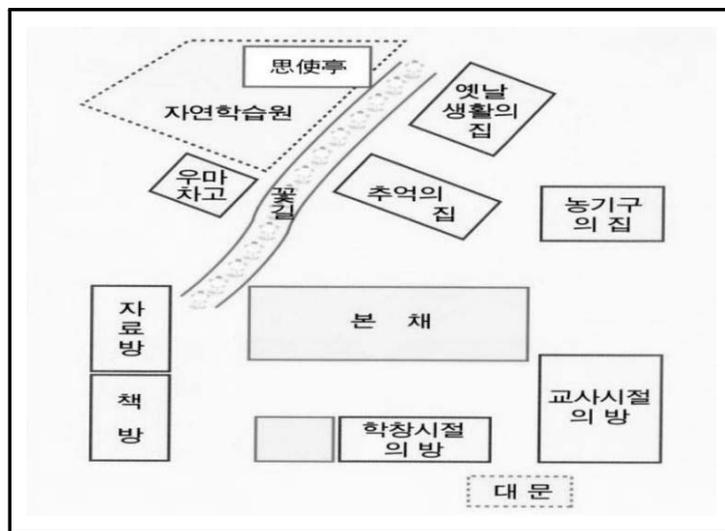
<표 8> 이용자 현황(2014.1.1.현재)

연도	이용자 유형				계
	학생	일반인	내부이용자	기타	
2011	-	3	41	21	65
2012	577	37	16	11	641
2013	1,095	5	36	7	1,143
계	1,672	45	93	39	1,849

3. 박연묵교육박물관 현황(2014. 경남교육청 박연묵교육박물관 조사보고서 참고)

가. 일반현황

박연묵교육박물관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연묵 선생이 일생동안 직접 생산하거나 모은 교육 자료를 보관, 정리한 것으로, 교육 신념을 실천하고 교육 역사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에 있고 부지면적 13,223㎡(4,000평)이며, 개인 생가 및 사유지를 전시관과 자연학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전시관에는 총 8,600여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소장 유형을 보면 1940년~1990년대 교과서, 교육자료, 교육박물, 학생문집, 수험서, 교육활동 사진, 일기,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등이 있다. 전시관의 공간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박연묵 교육박물관 전시관 현황

정면 대문으로 들어서면 정 중앙에 선생님이 거주하는 본채가 있고 오른쪽부터 본채를 빙 두르고 각 전시실이 꾸며져 있다. 편의상 교사시절의 방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제1전시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2호)

관~제5전시관, 농기구의 집, 우마차고의 집을 제6, 제7전시관으로 정했다. 추억의 집, 옛날 생활의 집을 제8, 제9전시관으로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그림의 집을 제10전시관으로 하고 자연학습원을 야외전시관으로 지정했다. 학창시절의 방 바로 옆 초록색 부분은 따로 명칭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각종 자수, 양장, 바느질, 수예도안 등이 전시되어 있어 의류·수예 소품 방으로 볼 수 있다. 전시관에 소장된 전시물의 내용은 <표 9>과 같다.

<표 9> 박연목교육박물관 소장유물 및 전시관 현황

전시실	전시주제	전 시 물	비고
제1전시관	교사시절의 집	미군정기 교과서, 광복이후 6·25이전 초등교과서, 수발신된 편지, 교육자료 목록(웅변원고목록, 수·발신편지 목록, 포스터목록), 보도자료 및 관련 사진, 교육관련 자료, 문집, 교양서적, 명함집 등	
제2전시관	학창시절의 방	피아노, 오르간 시대별로 전시, 교수 요목기 이후 교과서 전시, 교육자료, 군사교육자료, 일기(64년간 일기 보유) 등	
제3전시관	의류수예 소품방	자수기계, 기계 자수·손 자수 작품, 양장 전시, 바느질 소품, 수예도안	
제4전시관	책방	교육관련 잡지, 전과, 교육자료 전시	
제5전시관	자료방	타자기, 교육박물관전시(라디오, 시력검사표), 1946년 관광지도, 미니피아노, 교육테이프	
제6전시관	농기구의집	섬, 다듬목, 턱석, 가마니, 나막신 짚신 등	
제7전시관	우마차고	우마차 2점 전시	
제8전시관	추억의집	학생들 문집, 졸업사진(번호와 이름 스크랩), 견학기록문, 웅변자료	
제9전시관	옛날 생활의 집	길쌈방, 맷돌칸, 디딜방아칸	
제10전시관	그림의 집	유화, 전체망원경, 피아노, 과학실 소품, 광석, 장구, 북, 징, 팽과리	
야외전시관	자연학습원	접시꽃, 해당화, 녹차 등	
11개 전시관			

박연목교육박물관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2010년 이후부터는 연간 이용자가 평균 1,500여 명이 된다(<표 10> 참조). 박물관 이용자로써는 많은 수가 아니지만 경남 사천의 시골집을 찾는 인원이 연간 천명이 넘는다는 것은 큰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 할 것이다.

<표 10> 이용자 현황 (2014.1.1.현재)

연도	이용자 수	연도	이용자 수	연도	이용자 수
2000년 이전	1,523	2004	161	2009	531
2000	184	2005	411	2010	1,451
2001	30	2006	532	2011	1,780
2002	24	2007	699	2012	1,156
2003	43	2008	572	2013	747
누적 이용자수		9,844명			

나. 보유 박물관 및 기록물

박연목교육박물관은 상당한 수의 교육박물관과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박연목교육박물관의

기록과 유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직접 방문하여 소장 기록물을 조사하였다.

<표 11> 박연목교육박물관 기록물 보유현황(2014~2015. 경남교육청 민간기록유산발굴단 보고자료)

분류	보유량	주요내용	총계
일반문서	195건 (254점)	통신표, 교직백서발간준비집(1989~1992), 견학기록문 연구보고서(1970) 등	
서신류	1,871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등 총 1,871건	
간행물	4,527권 (5,532점)	고대문학선(진주고, 1954), 초등국어(1940년대), 금전출납부(1957) 국어자습서(1958), 이웃나라역사지도(1949), 간이학교 산술서(1936) 등	
시청각	231건 (538점)	사천공군비행학교 견학(1971), 낙도어린이들과 물 나들이 등	
행정박물	273건 (345점)	탁상시계(1954), 가계부(1969~72), 경기고등학교 교묘(1969) 경상남도도민증(1950,53), 수업노트(1963) 등	
기 타	52건 (100점)	개인노트, 초대장, 팸플렛, 경남교육신문 등	
고문서	23건	추재간독, 구암선생문집목록, 중용장구대전, 옥편전운 수옥부 등	
총 계			7,172건 (8,663점)

편의상 일반문서, 서신류, 간행물, 시청각, 행정박물, 기타, 고문서로 분류를 하여 총 7,172건, 8,663점을 분석하였다. 일반문서와 서신류, 시청각 기록물은 박연목 선생이 직접 생산하거나 받은 기록물들이 대부분이며 간행물은 각종 일반 간행물과 교과서, 문제집 등이 섞여 있다. 행정박물은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던 것과 수집, 기증받은 것들이다.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이 소장한 약 12,777점에 더하여 박연목교육박물관의 8,663점을 기증받고, 이외에 각 시군 교육청 및 학교에서 보관중인 박물과 기록을 수집할 경우 전국에서 손꼽히는 교육기록관리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설립 방안

##### 가. 설립부지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라키비움 모형'을 제안한다.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경남지역의 기록물 보존기능과 교육 사료의 수집 및 보존·전시기능 기반을 구축하고, 추후 야외전시관 및 학습장을 설치하여 현장체험학습장을 조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융합형 교육테마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복합형 문화유산관리기관으로 기능 및 시설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설립규모는 박연목교육박물관이 있는 부지를 추천하며 부지면적은 9,977~22,669㎡, 건

측면적은 7,316~10,074㎡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입지 예정지가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박연목교육박물관 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연목교육박물관의 입지요소는 <표 12>와 같다.

<표 12> 박연목교육박물관 입지조건(2014. 경남교육청 박연목교육박물관 조사보고서 참고)

입지요소	사천 박연목교육박물관
소재지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332번지
면적	13,223㎡ (건물 1,157㎡, 부지 12,066㎡)
상징성	1999년 9월부터 비공식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다가 2006년 박물관 명칭을 명명하고 운영함. 평생 동안 수집한 소장기록의 가치가 높고, 방문자가 많아 지역사회 인지도가 높음
자연환경	양호, 기존 차량 진입로가 좁아 진입로 확장 또는 변경이 필요 기부채납 예정지인 입야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박물관 설립이 가능
교통지리	자동차 이용용이, 대중교통 불편
접근성	선진리성, 항공우주박물관, 노산공원(박재삼문학관)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용이
사회경제	부지면적이 넓어 확장성용이 및 부지 매입 불필요로 토지 매입비 절감(기부채납)
안전성	유해시설 부존재

다른 부지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생가에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운영해온 박물관의 취지를 살리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현장학습의 공간으로의 장점이 있으며, 박연목 선생이 현 부지에서 박물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개인 사유지에 대한 기부까지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부지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부지에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게 되면 주변 항공우주박물관, 노산공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발전에 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연목교육박물관의 기존 예정부지는 반듯한 직사각형의 형태는 아니라 여러 소규모 전시장을 갖춘 테마형 전시관 형태의 건물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조직 및 인력 구성

기록관과 박물관은 문화유산 및 자원의 보존·관리·이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통적 요인을 공유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보유한 자원의 특성,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 조직문화 부분에서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한희정 외 2014, 47). 물론 현재 경남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교육박물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원들의 마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정원 조정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기록물관리기관, 교육박물관의 '공동프로그램부서모형'이 필요하다. 즉 중첩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협업기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개별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나 조직을 출발점으로 하여 부분적인 협업을 진행되어야 한다. 서로 중첩되는 유사업무에서의 공통점을 먼저 발견하고, 협력을 위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협업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기관의 경험이 있는 자들로 부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각각의 업무를 맡을 직원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식, 기술 능력을 보유하며, 협업에 적합한 인성을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교육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유산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전문가와 콘텐츠 개발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 기관내 참여자들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이 단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협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요구된다.(한희정의 2014, 47) 이를 바탕으로 조직도 및 주요 역할을 <그림 2>과 같이 설정하였다. 1과 4팀 체제로 구성했으며, 조직의 규모와 위상은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교육문화유산관리과			
정책운영지원팀	수집기획팀	보존관리팀	서비스운영팀
·기관운영기획 ·예산 및 결산 관리 ·물품 및 재산 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 ·행정지원 ·정보공개서비스	·30년 이상 기록물 이관·정리 ·교육문화유산수집 기획 ·교육문화유산 평가체계 관리 ·향토자료 조사연구, 구입 및 수증 ·교육문화유산 구입과 수증 ·교과서 및 교육자료 수집 ·각급 학교 역사관 지원 ·교육사 조사·연구 ·교육기록관리 지침 개발과 기관별 기록관리 평가	·보존 기획 ·교육사료 정리 및 기술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정리 ·보안 및 재난관리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교육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수장시설 관리 ·청수점검 ·수장물 수리/복원 ·수장물 복제(M/F 복제, 디지털화 포함)	·전시 기획 ·전시관 운영 ·열람실 및 행정자료실 운영 ·기록을 활용한 수업 지원 ·교육디지털콘텐츠 개발 ·교육출판물 및 자료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출판 활동

<그림 2> 1과 체제(1과 4담당)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인력 구성은 조직만큼이나 기관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관할 교육청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

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박물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수집과 전시관 운영, 전시기획 등의 역할, 교육 및 문화기관으로서 수업지원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의 핵심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남의 교육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컬렉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 법적 절차 및 향후 추진사항(2015. 경남교육청 기록관 내부자료, 참조)

박연목교육박물관 측은 공공기관에 기증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오랜 기간 생각한 결과 대상 기관으로 경남교육청을 일차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박연목 선생 생전에 기증에 따른 절차 및 이행을 확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연목교육박물관은 생가에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운영해온 박물관의 취지를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현장학습의 공간으로 현 부지에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연목교육박물관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고 있는 예정지인 임야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박물관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협상이 원만히 체결되어 박연목교육박물관 승계를 통해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경우, 법적, 행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단계 : 박물관 승계 및 교육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 방안 결정, 사천시와 공동 투자 및 건립방안 협의, 교육기록물관리기관 건립 중장기 세부계획 수립, 박물관 운영자와 소장기록물 및 부지 기증에 따른 사전협약
- 2단계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준비, 설립 예산 확보, 박물관 운영자와 소장기록물 및 부지 기증에 따른 법적 절차 추진
- 3단계 : 기록물관리기관 건립 공사 추진, 기관설립에 따른 운영 조례 제정, 정원확보 등 추진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이 경상남도에 설립되게 된다면 경남교육사 기록을 보존하여 전승하고, 학술적·문화적·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된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국에 많은 교육박물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교육청에서도 교육박물관과 연계하거나 교육박물관과 통합하는 방식의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경상남도 사례가 선구적인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이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박물관과 기록관을 통합하고 도서·정보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교육 라키비움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경상남도를 사례로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단위의 독자적인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설립의 실현가능성과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박물관과의 통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경상남도를 사례로 통합형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문을 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고려하되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경상남도의 경우 박연묵교육박물관의 기록물 및 부지 기부의사가 있었기에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및 인력 충원, 건립 예산의 마련, 법적 문제의 해결 등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 연구는 완결성 있는 설립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교육자치와 교육기록 및 교육기록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은 지자체 기록물관리기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둘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 학생, 교직원 등 물론 지역민들에게까지 편익을 줄 수 있는 교육문화유산기관으로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육 라키비움’ 방식의 현실성 있는 제안을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설립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정책이 나와야 하고 바른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거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선생님, 학생들이 있었는지 반추할 수 있는 기억 저장고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이 빨리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소망해 본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이 각 지방에 설립되려면 각 교육청 내부에서도 힘을 모아야 하지만, 지방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장지연. 2012. 『교육청 기록관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 서울, 대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14.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행정자치부령 제1호. 타법개정.
- 김민경, 이성신. 2014.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협력 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7(1): 1-24.
- 권범식.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 연구: 경기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도교육청-사천 박연목교육박물관 경남교육 역사 기록물 관리 협약. 2014. 『경남신문』. 11월 5일.
- 서한글. 201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학전공.
- 신현석, 안선희 외 공저. 2011.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안미리. 2009. 『단위학교기록물의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양승실. 2010. 『지방교육 행·재정 체제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오정훈, 이응봉. 2014.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원자력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5(2): 229-246.
- 이상희. 2014.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기록관의 협력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 이성희. 2009. 『교육청 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이재환. 201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 수집정책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임희연. 2004. 『학교기록물의 기록학적 관리방안 연구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오세희. 2013. 교육행정 지역화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역할 방향. 『사회과학연구(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4(2): 67-88.
- 윤정일. 2005.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 전진한. 2014.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관한 쟁점과 제언: 서울시 기록원을 중심으로. 『한국기

- 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 137-143.
- 정국환. 2004. 『지방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247-281.
- 최규명. 2007. 『온라인 전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교육청 기록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 최영실. 2013. 라키비움 공간기획을 위한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2): 143-167
- 한희정 외. 2004.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학회지』, 14(2): 31-60.
- Garnet, Dustin. 2012. "Unknown and Hidden: The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Education Archive." *The Canadian Review of Art Education*, 39: 48-63.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Miree. 2009. *The Development of the Table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for School Records*. M. A. thesis. Hanshin University.
- Choi, Kyu-Myong. 2007. *The Study Regarding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On-line Display Service : Focused on the Archives in Gyungna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M. A. thesis. Gyeongnam University.
- Choi, Young-sil and Hae-young Rieh. 2012. "Functional Planning of Larchiveum that Integrates the Funct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57-477.
- Choi, Young-sil. 2013. "A Study on Analysis of Remodeling Target Institution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143-167.
- Han, Hee-Jung et al.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ervices to Collaborate betwee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14(2): 31-60.
- Jeon, Jin-Han. 2014.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Establishing Provincial Archives :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 Archives."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Seminar*, 2014. 10: 137-143.

- Jung, Kuk-Hwan. 2004.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 Centering on the Cogni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Educational Agencies and Schools in Gyeongnam Province*. M. A. Thesis. Gyeongnam University.
- Ji, Su-Gol. 200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247-281.
- Kang, Jiyeon. 2012. *A Study on Web Archival Reference Service Evaluation of the Office of Education Records Center*. M. A. thesis. Silla University.
- Kim, Min-Kyung and Seong-Sin Lee. 2014. "The Collaborative Workplace Among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Social Science Discourse and Policy(Institute of the Social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7(1): 1-24.
- Kwon, Bum-Sik. 2009. *Study of Methodology for the building of Local Record Maintenance Institution(Archives)*. M. A. thesis. Joongbu University.
- Lee, Jae-Hwan. 2011. *A Study on Acquisition Policy of Local Archives - Focusing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M. A. thesis. Hannam University.
- Lee, Sung-Hee. 2009. *A Study on Collection Policy of the Office of Education Records Center*. M. 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Sang-Hee. 2014. *Study on the Cooperation of Records Centers for Promoting the Records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Offices of Education*. M. A.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Lim, Hee-Youn. 2004. *A Study on Archival Methodology for School Records Management: A Case Study of Secondary School Records*. M. A. thesis. Myoungji University.
- Oh, Jeong-Hoon and Eung-Bong Lee. 201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archiveum of Specialized Library: Focused on Atomic Larchiveum." *Social Science Studies(Institute of the Social Science, Chungnam University)*, 25(2): 229-246.
- Oh, Se-Hee. 2013. "The Exploring Role of Education Office in Loc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al Science Studies(Institute of the Social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4(2): 67-88.
- Seo, Han Geul. 2012. *A Study on the Operation of Local Archives : The Case of Gwangju City*. M. 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Shin, Hyun-Seok, et al. 2011.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Learning Society*. Seoul: Hakji-sa.